

연중 제2주일

제1독서: 1사무 3,3a.4-10.19

제2독서: 1고린 6,13c-15a,17-20

복 음: 요한 1,35-42

순정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요한 1,38)

강론

신변 잡기와 복음

서광석 신부/장수 천주교회
백혈병으로 허구한 날 피를 갈아대는 저 여인만큼 아픈 이야기는 내게 없다. 철거민으로 식구들을 길바닥에 내얹게 한 가장만큼 그렇게 절박한 이야기도 없다. 내 신변 잡기는 그저 그렇다.

누구에게 세상사는 이야기 없으랴. 내가 전해야 할 것이 신변 잡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솝이야기나 신문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천행이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데는 나설 일이다.

복음을 논리적 필연성도 없는 수식적 문학 작품으로 해석하는데에는 고개를 좀 가우뚱한다.

집에 찾아와 성서를 뜯어 맞춰 해석해 대는 사람들 때문에 난감하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데 복음이 그런 뜯어 맞추기 해몽이란 말인가? 아니다. 복음은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복음의 명백함을 문학의 그것에 비길 바가 아니다. 복음의 명백함은 필연이고 문학의 수식은 필연적이지 아니다.

복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객관적 진리를 전한다. 엄숙하게 냉철하게 결단하라고 요청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구세주 예수를 따를 것인지 묻는다.

그러면 버릴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글썄...

본질이 아닌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버려야 하는가? 그렇다면 교회 안의 그 많은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야 하는가?

그렇다. 복음은 분명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은 죄악이다. 살펴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매우 소중한 여기던 것 거룩하게 여기던 것임을 느낀다.

소리

왜 이리 불안한가

왜 이리 불안한가? 아침에도 불안하고 저녁에도 불편하다. 숨을 내쉬어도 답답하고 들이쉬어도 묵지근하다. 잘 생각해보니 불안해서 그렇다. 불안해서 불안하다니!

새해가 되었지만 나아진 것이 없고 아기 예수님이 새로 태어나셨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올해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불안의 샘구멍이었던가 보다. 이대로라면 바뀔 길이 없을테고 희망이란 또 바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전엔 대통령이란 민주사회의 대표직책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믿어진다. 막대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대통령직이다.

대통령은 왕이나 다름이 없으니 대통령직이란 왕직인 셈이다. ‘왕직’이라면 가톨릭교회에서는 봉사직 즉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배하기 그것도 강압적 지배와는 거리가 멀다.

왜 이리 불안한가 했더니 대통령·대통령직·대통령 선거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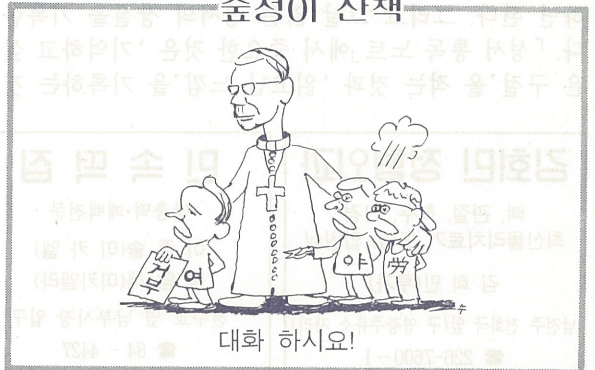
우리에게 희망을 줄 이는 없는가?

왜 희망을 달라고 하느냐고?

제가 희망을 주는 자가 되면 안 되겠느냐고?

후유, 어찌할 것인가. 희망은 절망의 저쪽이라고 어둠은 빛을 낳는 법이라고,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그늘진 쪽이라고 믿으면서.....

순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성서 통독 노트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1.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는 동안 교우들에게 성서 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인의 양식이며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매일 성서 읽기를 권장하였다. 매일 성서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우들이 한 주간 동안 읽어야 할 성서 대목을 주보에 소개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교우들이 매일 성서 읽기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교우들에게 매일 성서를 읽게 할 수 있을까? 또한 교우들이 매일 성서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교우들이 성서 읽기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는데 효과적일까? 하고 고심한 일이 있다. 이번 교구 사목국에서 마련한 「성서 통독 노트」는 이런 사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성서 봉독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지난 호에서 성서 통독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서 통독 노트」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교구에서는 「성서 통독 노트」신청 공문과 함께 각 본당에 이미 「성서 통독 노트」견본을 보내드렸고, 많은 본당에서 노트를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본보를 통해서 「성서 통독 노트」를 소개받은 교우들이 이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 오고 있어, 그 사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 여기에서 소개한다.

‘성서 통독표’는 신구약 성서 총 73권의 각 장을 표시해 놓았다. 성서 봉독자는 ‘성서 통독표’에 자신이 읽은 성서 분량을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연필로 빗금을 그어 표시하면 된다.

「성서 통독 노트」는 먼저 성서를 봉독하는 일시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몇 분간 성서를 읽었는가를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그날 읽은 성서의 장절을 기록한다. 「성서 통독 노트」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적는 것과 ‘읽고난 느낌’을 기록하는 것

이다.

3. 성서를 봉독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기록하여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한다든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 더듬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잃기 마련이다. 만일 우리가 성서를 봉독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외워서 기억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기도를 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억된 성서 구절들은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각자의 신앙 생활에 활력을 주고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성서 봉독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기록하여 암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4. 그 다음에 매일 성서를 읽고난 후 가능하면 그 느낌을 기록하도록 「성서 통독 노트」는 요구하고 있다. 느낌을 기록하는 란에는 자신의 느낌을 적어 두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오려서 붙여도 된다. 성서 전체를 통독하면서 자신이 가진 느낌을 기록하고 표시할 때 이것은 개인의 영성생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영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면서 가지는 감동들을 교구 「숲정이」편집실에 보내 주시면 「숲정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5. 「성서 통독 노트」는 100일 통독을 기준으로 마련하였다. 만일 1년에 걸쳐 신구약 성서를 완독하려 한다면 노트가 3권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성서 통독 노트」에는 ‘성서 통독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서 통독 노트」를 활용하지 않고 통독표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질의 ‘성서 통독표’를 마련하였다.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의 매일 성서 읽기 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구입처 : 각 본당 사무실과 교구청 사목국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민속떡집
 맛춤떡·패백전문
 이종술(미카엘)
 박양레(미카엘라)
 전주교 옆 남부시장 입구
 ☎ 84 - 4427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이상 미혼여성
 ·일시: 1월26일(일) 오후2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랑진 본원
 ·문의: ☎(0527)52-4241, 53-3575
 ·준비물: 신구약 성서

(주)이삭온돌침대 파워스톤
 수백방직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전남북 총판
 박천운(베드로), 임선재(데레사)
 ☎ (0652) 251 - 9836 ~ 7
 호출기 015 - 675 - 9824
 휴대폰 011 - 651 - 7124

잠깐

가정 성서 모임

삼천동 성당(오성기 신부)에서는 2천년 대희년까지 '가정과 본당의 성화'라는 사목목표를 설정하고, 97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본당의 성화'라는 표어를 세워 각 가정에서 성서 모임을 시작하였다.

'가정 성서 모임'은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서를 읽고 나누는 것이다. 성서를 읽는 방법은 가정의 계획에 따라 성서 통독을 하던지 아니면 주일 성서 말씀을 읽던지 자유롭게 한다. 성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느낀점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생활



검토 등을 하면서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일주일 동안 학교나 가정, 직장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안에 사랑을 더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가운데 가족 회의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간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부족했던 점은 서로가 보완해 주고, 기뻐했던 일은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의 고리를 단단히 연결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

가족 회의에서 특이한 사항은 본당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본당의 협조할 사항이나 행사를 전하므로 본당 공동체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서를 읽고,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는 삼천동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희망해 본다.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1.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1월26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2. 사제서품 대상자 피정: 1월21일~28일 천호 피정의 집
3. 중·고 전례부원 연수: 1월25일~26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제18차 전주 선택 주말: 1월31일~2월2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젊은이
회비-45,000원, 문의 및 접수 ☎ 85-0041(교육국), 85-3637
5. 전주 사회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20(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센터
6. 혼인강좌: 1월26일(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각 15,000원
7. 사제 어머니회: 1월20일(월) 오후 2시, 전동 성당 총연관
8. 기억할 사제: 26일 서정수(알렉시오) 신부 12주기

요심이 (1222) 김병오

대담 면접 교사장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어려운것만 골라서 묻네...

Y.S식으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좋소!

1시간동안 문고대담했어 이젠 그만 끝낼시다!

교구청 직원모집

• 모집부분: 경리 • 지원지역: 영세한 지 5년 이상된 교졸이상 미혼여성, 주산 2급, 부기 2급, 워드 2급 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명기), 세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통 • 서류미감: 1월28일(화) • 서류접수: 전주교구청 사무처 ☎ 85-0041(면접일자는 개별 통보함)

돈보스고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 모집부분: 기계과(선반 00명 및 기계조립 00명) • 자격: 고졸 및 중졸 만 15~23세(군필 및 면제자) • 교육기간: 1년 • 원서교부 및 접수: 2월19일까지(중졸), 2월28일까지(고졸) • 혜택: 교육과정 및 기술사비 무료, 전원 취업보장, 전원 기술사 생활, 종교 및 인성교육 등 중졸학력 소지자 방송통신고 전원 입학, 전원 컴퓨터 교육 • 문의: 돈보스고 청소년 센터 (02)833-4010, 408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판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김태우(알풍소)·황진숙(안젤라)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 88 - 7717~8

K랜드 눈 썰매장

• 순수하고 꿈의 나라
• 주간(오전10시~오후4시)
야간(오후5시~오후9시)
윤 병 순(오 션)
김 혜 경(레지나)
금구~원평 중간 목우촌 앞
☎ (0658) 42 - 0365

아이사랑 어린이집

• 모집연령 : 3세부터 취학전까지 (영아반, 중일반 운영)
-사랑을 같이 나눌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신 미(헬레나)
팔복 초등학교 맞은편 (150명의 궁전식 건물)
☎ 212 - 8873, 254 - 2862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 - 0550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회신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예수 그리스도안에 가정과 본당의 聖化

- 모임 안내: ① 올트레아-교중미사 후
② 제대회-22일(수) 전 10시
③ 편집부, 전례부, 성소후원회, 사랑의 다리-26일(주일)
- 성전기금 마련 헌금: 오늘 미사중에 2차헌금 있음
- 축하! 레지아 1단계 기사 교육 수료-최병길(보나) 공판임(이레네), 김용임(안나), 김현숙(비비안나)
- 가정 방문: 22일(수)-우성1반, 23일(목)-우성2반
24일(금)-우성3반
- 성서교실: 매주 목요일 전 10시
- 떡가래 판매: 성심 부녀회에서 판매함
-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음
- 주의 봉헌축일: 제대 꽃과 초를 봉헌받습니다.
- 사회복지주일: 다음 주일 사회복지 2차 헌금 있음
- 설 합동 위령미사: 사무실에 접수 바람
- 금주 전례: 해설-김학덕, 독서-오기모(리베르도) 부부
예물봉헌-서재민(유스티노) 가정
- 차주 전례: 해설-박수환, 독서-김준수(야코보) 부부
예물봉헌-변대현(사도요한) 가정

□지난주 봉헌금: 1,355,950원 □교무금: 1,044,000원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따르려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 금주 모임: ① 임시총회-낮미사 후
② 상지원 봉사-임시총회 후
- 본당 신부님 MBW 전국모임 참석: 20일(월)~25일(토)
※주간 평일미사는 말씀의 전례 거행
- 차주 모임: ① 96년도 본당유지비 결산보고
② 대건회, 성모회-낮미사 후
※사회복지 주일 2차헌금 실시
- 신축헌금 수입현황: 245세대, 5억4천6백8십9만원
- 청소 봉사: 25일(토)-상지의 옥좌Pr.

□지난주 봉헌금: 870,350원 □교무금: 683,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무실 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74-9260 수녀원 74-9262 사목회장 유준웅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따르려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 ◎오늘: 교무금 납부일, 금년 교무금을 신청바랍니다.
- 금주 모임: ① 푸리아-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② 방주회-공식미사 후, 4회의실
 - 주간 모임: ① 자모회-23일(목) 전 10시, 유아실
 - 차주 모임: 청년공동체 정기총회-저녁미사 후, 4회의실
※차주-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 예비자 교리: 화요일(직장인)-후 8시, 4회의실
목요일(주부반)-전 10시, 4회의실
 - 성서 공부: 매주 목요일 전 10시, 4회의실
 - 환자 봉성체: 24일(금) 후 2시부터, 수녀님
 - 중·고 전례부원 연습: 25일(토)~26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유아세례: 30일(목) 후 7시 30분 ※28일(화)까지 신청바람
 - 영세자 첫 고백성사: 30일(목) 후 7시
※96.12.22 영세자는 빠짐없이 참석 바람
 - 서신신협 5차 정기총회: 차주 공식미사 후, 통장 및 도장지참
 - 전입가정 환영: 이류창(그레고리오) T.253-4590, 1구역
손윤선(베드로) T.77-2767, 광진A 107/1407
김영근(바오로) T.254-8651, 광진A 105/108
이광수(비오) T.251-1966, 성원A 106/1404
 - 독서: 금주(새벽) ①한규준 ②박래신, 차주 ①한병훈 ②박순희
(공식) ①박기영 ②김경숙, 차주 ①김병호 ②노계실
 - 미사 안내: 금주-증거자의 모후Pr., 차주-가난한 이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552,650원 □교무금: 1,875,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니이다. ◎ 새 성전 신축위한 목주기도 봉헌: 소계-4,563단, 누계-295,093단

- 모임: ① 푸리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 요셉, 사랑화-다음주 공식미사 후
- 일꾼 피정: 26일(일) 8시, 치명자산 성당
※사회회 임원, 제단체장, 구역·반장, 건축위원은 전원 참석 바람
- 예비자를 인도 합시다: 교리시간-매주 화, 금 미사 후
- 구역(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 97년 교무금 신청을 이번주 안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 금주 전례: 해설-정희수
독서-①이기환 ②황병숙
- 차주 전례: 해설-박연식
독서-①황궁석 ②이수자
- 감사 헌금: 청학동 칠명면-오십만
- 청소봉사: 2구역 전체

□지난주 봉헌금: 849,250원 □교무금: 602,000원

회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F A X 223-3821 수녀원 223-3822 사목회장 이병선

◎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 금주 성서통독: 마테오, 마르코 복음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읍시다)
- 금주 모임: ① 자모회-21일(화) 전 11시
② 예물살림회-25일(토) 전 10시
③ 꼬미시움-25일(토) 후 3시
 - 차주 모임: ① 구역형제회-26일(일) 후 3시
② 전례해설단-28일(화) 후 8시
③ 푸리아-29일(수) 전 10시 ④ 사목회-31일(금) 후 8시
 - 유아세례: 26일(일) 후 5시
 - 성체조배자 시상: 오늘 10시 30분미사 후
※성체회원들은 전원 참석 바람
 - 주의 봉헌 축일(2월2일): 모든 교구가 예비자나 담당자를 한 사람 씩 봉헌합니다. 제대초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 예비자 교리: 수요일-후 8시(청년, 직장인반), 목요일-전 10시(주부반), 금요일-전 10시 30분(노인반), 일요일-전 9시(직장인반)
 - 다음주 차(茶) 봉사: 쌍용3단지APT
 - 다음주일: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 축! 전입: 김옥기(마리아)-효자동1가 188-15(T.223-9409)
김서운(말지나)-쌍용3단지APT 302/112(T.227-1724)
- ※본당 발전헌금 봉헌자: 신동섭(베드로)-십반, 김주홍(안토니오)-십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00,100원 □교무금: 1,249,000원
□2차 헌금: 613,040원

회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F A X 226-1044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규완

- ◎ 성전 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 단 봉헌
소계-3,995원, 누계-599,877단
- ◎ 오늘 성전 신축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주의 봉헌축일(2월2일): 1년 기간동안 제대초 봉헌하실 분-사무실에 접수바람
 - 신축헌금 봉헌자: 추경석-3십, 김영삼-1십, 유재정-2십, 태기홍-2백, 이영덕-5십, 이형순-1백, 문형래-5십, 홍옥자-1십, 백진표-2십, 김경희-1백, 김진숙-3십, 정봉구-3십, 한복희-1십, 신성례-2십, 모혜경-2십, 한수자-1만, 라병태-1십, 최용자-5만, 이성기-5십, 익명-1만
※소계-7백6십6만원, 누계-9억2천2백9십8만원
 - 초등부 6학년·중등부 모악산 등반: 26일(일) 9시미사 후
 - 폐품 수입: 소계-84,550원
누계-5,528,540원(96.1.1-12.31, 2,722,920원)
 - 주유권 판매 수입: 소계-200,000원
누계-5,537,500원(96.2.26~12.31)
 - 금년도 교무금 미신청자는 정성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차주: 승리의 여왕Cu., 사목회, 요셉회, 사회복지주일(2차헌금) 반회장 준비모임
 - 금주 전례: 해설-허진영, 독서-①권호상 ②허선영
봉헌 안내-최종록, 강경자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우기도 ②배계향
봉헌 안내-강신호, 임예자 부부

□지난주 봉헌금: 1,854,870원 □교무금: 1,985,000원